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사순 시기

메시아가 갈릴래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요한 7.41)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성시간	매월 첫 (토) 11:00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 성수 예식과 축일자 축하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야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① 전례 안내

▶ 4/ 6(일) 사순 제 5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성수 예식과 축일자 축하

▶ 4/ 8(화) 사순제 5 주간 화요일 미사 (본당 20:00)
▶ 4/13(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② 십자가의 길 안내(매주 금요일 19:30)

• 4/11 주일학교 자모회/복사단/자모회 • 4/18 구역장

③ 부활 축하 공연 구역별 단체별

1곡은 성가, 2곡은 자유곡(개사 요망: 구역이름, 부활)
문의: 부총무 박규혜 카타리나

④ 부활 맞이 대청소 오늘 미사 후

1 구역: 6개 현관문 유리창

2 구역: 유아실, 고백소, 카페, 양업실

3 구역: 신부님 집무실, 하상실

4 구역: 주방, 친교실

5 구역: 대철실, 정혜실, 성체조배실

6 구역: 성전, 성가대

7 구역: 효임실, 효주실

⑤ 새신자 소개

7구역: 이준석(바실리오) 김윤희(아나스타시아) 이민서(에스텔)
이현서(안나)

5구역: 장인옥(율리안나)

1구역: 추승엽(미카엘), 소피아(소피아), 추훈(일리아), 추민

◎ 판공 성사를 마치신 분은 성사표를 반드시 전례분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대축일 해설 독서 봉시자 연습 4/8(화) 미사 후

◎ 부활대축일 복사단 연습 4/13(일) 미사 후

단체 소식

◎ 은빛대학 오늘 친교식사 후 장례에 대하여

◎ 울뜨레야 4/10(목) 성시간 이후 친교실

◎ 꾸리아 4/13(일) 미사 후

공소 소식

◎ 십자가의 길 안내 매주 일요일 4:50 pm 시작
(5분전까지 성당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 4월 공소 축일자 - 4/12 손대민 안드레아
4/29 조예정 카타리나

구역모임 (소식)

4월 묵상복음 요한 20, 19~31 "평화가 너희와 함께"

1 구역 4/12(토) 11시 친교실

2 구역 4/19(토) 11시 친교실

3 구역 4/12(토) 12시 친교실

4 구역 4/ 6(일) 13시 친교실

5 구역 4/13(일) 13시 친교실

6 구역 미정

7 구역 4/27(일) 17:30 이정환 토마스

친교식사

4/ 6: 4 구역(비빔밥, \$5/\$3)

4/13: 5 구역 4/20: 부활식사 4/27: 6 구역

우리들의 정성

※ 가난한 이들을 위한 현금 \$40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3명)			
주일현금	\$1310	교무금	\$55
감사현금	\$	성전건립	\$40

④ 4월 축일자 명단 (20명)

4/ 4 힐데베르트(유근상) 4/ 5 이례네(민정숙)

4/11 젬마(이인선, 신신배) 4/21 다니엘(최환)

4/22 베드로(최무원, 박서준), 레오(박승준, 최현성)

4/24 마리아(강정숙), 보나(최다희) 4/25 마르코(권혁진)

4/26 벨라뎃다(신우애) 4/30 소피아(김선화)

4/29 카타리나(윤월미, 김순남, 심현숙, 박규혜, 이지수, 최춘자)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순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 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이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사십 일 동안 재를 지켰고(탈출 34, 28 참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 사십 일을 걸었다(1 열왕 19, 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 1-2 참조). 이처럼 ‘사십’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 금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재는 만 14 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재는 만 18 세부터 만 60 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136 조 참조).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게 해야 한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는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4/6	박규혜 카타리나	최다인 앤나,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우 바오로, 이지민 이사벨라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4/13	권희진 요안나	최두원 스템파노, 송찬 아론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4/20	이은영 힐데가르트	최두원 스템파노, 송찬 아론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이준서 사도요한,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권희진 요안나 임연신 비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김태환 요셉 신부
송도성당 주임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땅에 원가 쓰십니다. 죄로 인해 끌려 나온 사람은 여자지만 이를 빌미로 그들이 고발하려고 작정한 진정한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땅에 원가 쓰십니다.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품고 있던 공격성을 누그러뜨리고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가 되게 하십니다.

처음 그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실제로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땅에 글을 쓰면서 보이신 침묵의 시간이 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그들의 질문 뒤에 즉시 하셨더라면 그들이 여자와 함께 예수님이 지녔던 공격성을 어떤 형태로든 표출했을 것입니다.

왜곡된 공격성이 제거된 뒤에 제시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이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다는 것은 사람이 산 만큼 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보다는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성찰의 기회, 실패의 경험이 많기에 그 반성의 연습으로 인해 더 쉽고 빨리 남을 탓하고 단죄하던 시선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으로 바꾸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역시 선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높은 선을 가진 분은 죄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고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남의 판단과 단죄 이전에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그분께서는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하십니다. 사순절은 서로 용서하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용서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그 용서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St. Peter Yu
Roman Catholic Church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사순 제 5 주일

(2025. 4. 6.)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6-21

화답송 시편 126(125), 1-2 ㄱ ㄴ . 2 ㄷ ㄹ - 3.4-5.6 (◎ 3 참조)



후렴.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찬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8-14

복음 환호송 요엘 2,12-13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